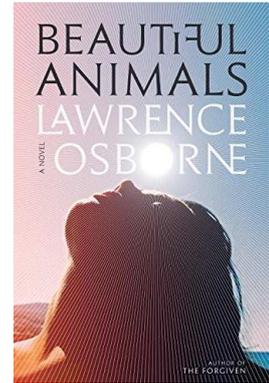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EAUTIFUL ANIMALS
가제 : 어여쁜 짐승들
저자 : Lawrence Osborne
출판사: Hogarth
발행일: 2017년 7월 1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2017년 여름 도서(SUMMER PICK)**, 「가디언」 선정 휴가철 최고의 도서(**BEST HOLIDAY READS**)
- *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책. 정교하고, 영리하고, 불편하면서 기막히게 훌륭한 소설이다.” – 「워싱턴 포스트」
- * “예측 못할 방향으로 가차 없이 흘러가는 강렬한 작품. 작가는 황홀하게 아름다운 그리스 섬에 있더라도,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 **NPR “fresh Air”**

“우리 둘은 참 예쁜 동물들 같아.” 사만다는 나오미와 함께 푸르른 바다를 곁에 낀 언덕을 오르면서 생각했다. 다리와 발을 다친 아빠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선택한 그리스의 이드라 섬에 억지로 따라온 후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만다는 나오미를 만난 후부터 심심할 일이 없다. 자동차를 탈 일이 별로 없는 곳에 가야 자꾸 걷고 나올 수 있다며 이 섬을 택한 아빠는 뉴욕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급 빌라를 여름 내내 빌렸고 사만다와 엄마, 남동생까지 온 가족은 그리스에 첫 발을 디뎠다.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는 마을 아주머니가 알려준 한적한 해변에 엄마와 처음 와본 날, 홀로 해변가에 앉아 있던 나오미와 처음 만났다. 그리스어도 유창하게 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모습, 미끈한 몸매를 한껏 드러낸 나오미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자아도취에 젖어 있는 여자였다.

스물네 살, 영국에서 법률회사에 다니다 해고당한 후 아버지가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드라 섬의 대저택에 쉬러 온 나오미에게 이곳은 고향이나 다름 없었다. 여름마다 와서 섬 곳곳을 돌아다니고 아버지의 호화로운 집과 요트를 오가며 살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고, 그리스 사람인 새엄마와는 친해질 생각도 없었다. 늘 꼭 붙어 다니는 아버지와 새엄

마는 자신들과 함께 지내기보다 늘 혼자 있으려 하는 나오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틈만 나면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사만다와 만난 그 날도 동 트기 전부터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치고 혼자 언덕 높은 곳에 있는 집을 나와 해변까지 단숨에 내려왔다. 그곳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아직 너무 새하얀 피부와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가진 사만다를 본 것이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고, 서너 살 더 많은 나오미는 모든 면에서 사만다를 리드하기 시작한다. 무료해하는 사만다를 위해 섬 구석구석을 함께 구경하러 다니며 가이드를 자처하고 주인들이 즐거가는 바나 음식점에도 데려간다. 둘 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라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많아서 더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긴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상의를 벗고 누워 있는 남자를 발견한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의견이 부딪힌다.

밭에도, 팔과 가슴에도 곳곳에 굵히고 찢긴 벌건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난 남자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나오미와 사만다는 그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발동한 나오미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가 잠든 것일 뿐 크게 다치거나 죽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나오미는 뜻밖의 제안을 한다.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 계속 탈출하는 상황인 만큼, 그리스인도 아니고 아랍인의 외모를 한 저 사람도 그런 난민 중 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이 나오미의 판단이었다. 오갈 곳이 없는 그가 필사적으로 살 곳을 찾아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으니 함께 도와주자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발견한 이상 무시할 수는 없다고 나오미는 계속 주장했다. 사만다는 주춤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저런 몰골로 나타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도와주자는 생각은 무모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미는 막무가내였고, 변호사 출신답게 사만다를 끈질기게 설득한다. 결국 사만다는 며칠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구도대로, 결국 나오미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 간다. 나오미에게 남을 돕고 싶은 것보다 신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박해봤지만 별 소용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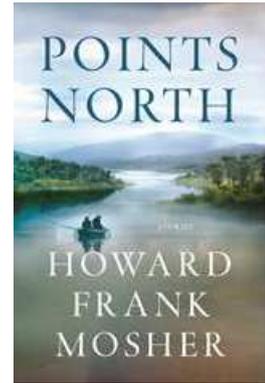
나오미는 아버지의 집을 도둑 맞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돈을 몰래 빼내서 해변에서 만난 남자, 포드에게 준다는 대범한 계획을 세운다. 난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듯한 포드도 순순히 나오미의 세밀한 계획에 동참한다. 그러나 이 엉뚱한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포드는 단순한 절도범이 아닌 중범죄자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세상물정 모르고 화려한 우리 안에서만 살던 두 예쁜 동물, 나오미와 사만다는 1 퍼센트 상류층의 테두리를 벗어난 세상,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진짜 세상과 맞닥뜨린다.

나오미의 치밀한 계산, 그녀를 향한 왜곡된 경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만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포드, 세 사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방향을 향해 내달린다.

<저자 소개>

로렌스 오스본(Lawrence Osborne)은 『The Forgiven』, 『The Ballad of a Small Player』, 『Hunters in the Dark』 등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여러 편의 소설과 회고록, 여행기, 에세이를 썼다. 단편소설 'Volcano'는 2012년 미국 최우수 단편소설(Best American Short Stories)로 선정됐다. 현재 방콕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POINTS NORTH
가제 : 북쪽으로
저자 : Howard Frank Mosh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1월 23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소설/ 단편 모음집



- * 포크너에 비견되는 소설가, 올해 1월 고인이 된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
- * “진한 핏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공동체의 이야기로 담아내는 작가”- 「뉴욕타임스 북 리뷰」
- * “작가가 구축한 버몬트의 ‘왕국’은 미국에서 가장 마법 같은 소설 속 공간이 되었다.” - 소설가 리처드 루소

열네 살쯤 됐지만 덩치로 보면 열여섯 살은 족히 된 것 같은 손자 녀석을 데리고, 프리먼 노인은 보트에 올랐다. 여섯 살 때부터 키운 손자는 낚시할 때 쓰라고 준 칼을 몰래 점심 도시락 가방에 찔러 넣고 학교에 등교할 만큼 갱이 보통이 아닌 아이였다. “어제 나더러 깡둥이라고 한 농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거야.” 슬쩍 끼워놓은 칼을 노인이 발견하고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노인은 그 날로 더 이상 손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무단결석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집에 찾아왔을 때 노인은 손자 못지 않은 갱으로 단번에 교사를 내쫓아버렸다. 저 멀리, 거위를 유인하기 위해 세워둔 나무로 된 모형 새를 노인이 가리키자마자 손자는 어깨에 매고 있던 사냥총을 겨누고 머리를 날려버렸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이 겁 없는 노인과 손자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산 건 아니었다. 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살아온 버몬트 주의 외딴 강변 오두막에서 60년이 넘도록 댐 지킴이를 자처하며 살아온 노인은 자신이 이 마을에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주인이 될 줄도 몰랐고, 그런 자신의 곁에 어린 아이가 있을 거라곤 더더욱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손자가 폭약을 자유자재로 만지며 숲에서 목재를 날려버리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거침없는 아이의 행동은 젊은 날 자신과 영락없이 닮아 있었다. 금주법이 엄격히 시행되던 시절, 캐나다로 건너가 술을 가져다 몰래 팔았던 일이나, 대형 농장에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짐꾼으로 일했던 시절이 거침 없는 손자를 보면 자동으로 떠올랐다. 여섯 살쯤, 자신의 외딴 오두막 앞에서 있던 손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렴풋이 ‘나 같은 농이군’ 싶었지만 이 정도로 닮았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프리먼 노인의 딸은 아이 못 앞섰에 옷핀으로 메모지 한 장을 꽂아놓고 그렇게 아이만 덜렁 내버려둔 채 어딘가로 가버렸다. 노인의 아내, 딸아이의 엄마는 깊숙한 산속에 은둔한 채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으려 했다. 강변의 작은 오두막에는 노인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말기고 갑니다’ 한 마디만 남기고 간 딸의 아이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보자마자 자신의 핏줄임

을 깨달았다. 겨우 여섯 살 정도된 그 꼬마는 울지도 않고, 이름이 뭐냐는 말에 알아맞혀보라고 하질 않나 노인이 '내가 네 할아버지'라고 해도 자신은 할아버지 같은 건 없다며 한동안 그 말을 믿지도 않았다. 그렇게 얼떨결에 떠 맡은 아이와 노인은 어느덧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된 것이다. 노인이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전수 받은 사냥 기술, 낚시 기술은 그대로 소년에게 전해졌다. 노인이 낚시 도구를 손보고 총을 닦는 동안 아이는 언제부터 그 집에 있었는지도 가능할 수 없는 바이올린을 들고 키네슨 가 남자들이 대대로 연주했던 곡조를 능숙하게 연주했다. 몸집이 커가는 만큼 아이는 이제 노인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우친 등직한 소년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노인은 아이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 함께 보트에 오른다. 먼 옛날 목숨 걸고 도망쳐야 했던 노예였던 사람, 노인이 열다섯 살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남자와 그 뒤를 쫓던 노예 사냥꾼, 그리고 섬뜩한 이를 드러내며 그 뒤를 내달리던 사냥개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노인은 그때 무사히 달아나 이 마을을 처음 일으킨 사람의 무덤가로 향했다.

버몬트 주 킹덤 카운티를 배경으로 키네슨 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총 열 편의 단편으로 그린 이 책에는 농부와 주류 밀매업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 판사, 신문사 편집장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가족과 자연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변해가는 세상과 바뀌어가는 환경에 놀라고 당황하며 적응해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감상적이지도 않고, 과하게 비판적이지도 않다. 시골 어느 작은 마을의 평온한 삶과 그곳에 몰아 닦친 매서운 변화의 바람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린 열 편의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친근감 있게 우리를 지나간 그 시절로 안내한다. 한 이야기에 청년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다른 이야기에서 노인으로 다시 등장하기도 하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유머, 정체성과 인간답게 사는 법에 관한 소박하지만 깊은 고찰과 더불어 풍성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하워드 프랭크 모셔(Howard Frank Mosher)는 『A STRANGER IN THE KINGDOM』, 『DISAPPEARANCES』 등의 소설과 비소설을 총 열세 편 썼다. 구겐하임 기념 재단 지원자로 선정되었으며 뉴잉글랜드 도서상 등 여러 문학 상을 수상했다. 2017년 1월 일흔네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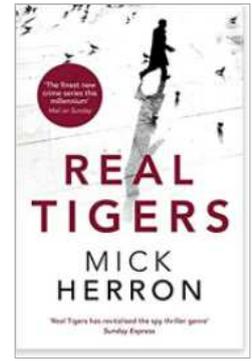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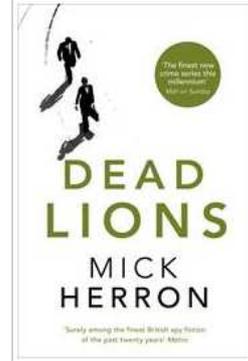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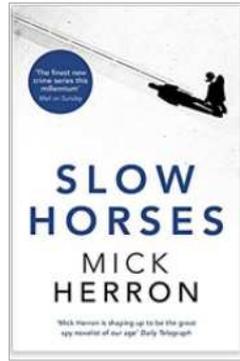
제목 : JACKSON LAMB SERIES

가제 : 잭슨 램 시리즈

저자 : Mick Herron

출판사: John Murray

장르 : 소설/ 스릴러



- *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에스토니아, 미국 판권 계약 체결 / 영화 '킹스 스피치' 제작사와 TV 프로그램 계약 체결
- * 2013년 CWA 골드 대거 상(CWA Gold Dagger Award), 수상, BBC 라디오 '프론트 로(Front Row)' 선정 최고의 범죄 소설, 「타임(Times)」지 선정 2013년 올해의 범죄 스릴러 도서
- * “냉소적이지만 웃기고, 흥미진진하게 복잡한 소설” – 「인디펜던트」

한때는 영국 정보부 요원으로 화려하게 살았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그 명예로운 길에서 쫓겨난 사람들,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밀 작전에 큰 피해를 입힌 이들의 종착지 ‘슬라우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첩보 스릴러 시리즈가 2010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까지 총 다섯권이 출간된 이 시리즈는 슬라우 하우스의 리더 잭슨 램과 실추된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는 괴짜 일색 전직 정보부 요원들이 펼치는 활약을 그린다. 제각기 다양한 허점이 있지만 열정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출간 이후 계속해서 ‘최고의 스파이 스릴러’로 찬사를 받고 있다.

1권. 느려터진 말들(SLOW HORSES) 발행일: 2016년 8월 11일(재판) / 분량: 352 페이지

영국 정보부 요원들의 ‘쓰레기장’이라 일컬어지는 ‘슬라우 하우스’에 갓 입성한 리버 카트라이트는 ‘느려터진 말들’로 불리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전직 요원들과 함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업무에 시달린다. 시시한 도청 자료를 들으며 타이핑을 한다든가, 파쇄기나 쓰레기통을 뒤져 뭔가를 찾아낸다든가 하는 일이 이곳에서 리버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그동안 들었던 소문처럼 슬라우 하우스에는 양(램)이라는 뜻의 성과 정반대로 좌천된 요원들을 질경질경 못 씹어 먹어 안달인 리더 잭슨 램과 더불어 일급 기밀 문서를 버스 안에 놓고 내려 하필 방송국 기자 손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중요한 단서를 잃어버리고 불명예 요원이 된 자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우수한 요원이라 자부하는 리버는 다시 피 끓는 작전에 투입될 날만 기다렸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 꿈만 안고 살던 어느 날, 파키스탄 출신 심대 소년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아이를 잡아간 집단은 며칠 후 참수 장면을 생중계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리버는 이 잔학한 일당이 로버트 흄튼이라는, 유명한 기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동료 요원 중 한 사람이 립튼 기자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그 기자는 극우정당인 애국당과도 접점이 있었다. 어쩌면 이 일이 느려터진 말로 치부당해야 했던 시간들을 설욕할 기회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리버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한

다. 납치범들이 공표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잡혀간 소년과 기자의 충격적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2권. 죽은 사자(DEAD LIONS) 발행일: 2016년 9월 8일(재판) / 분량: 352 페이지

불명예를 안고 퇴직한 '어딘가 부족한' 첩보요원들이 모인 슬라우 하우스의 리더 잭슨 램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요원 중 한 명인 딕키 보우와 버스에 올랐다가 놀라운 사건에 말려든다. 옥스포드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딕키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그가 쓰러질 때 상황이나 의학적인 진단으로는 심장발작이 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잭슨은 절대 자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과거 독일 베를린의 거리를 떠 돌던 시절, 딕키가 러시아의 전설적인 정보요원 알렉산더 포포프와 엮였던 일이 드러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잭슨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또 하나, 딕키가 죽기 전 휴대전화에 미발송 메시지로 남겨놓은 '매미'라는 한 단어에도 뭔가 꺼림직한 수수께끼가 숨어있다.

딕키의 이 수상한 죽음에 분노한 잭슨은 자신이 나서서 모든 의혹을 풀기로 마음 먹는다. 한편, 정부가 2급 정보요원들의 활동을 외면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던 슬라우 하우스의 요원들은 영국 방문 일정이 잡힌 국제적인 석유 재벌 파쉬킨을 경호하라는 임무를 준비하던 중 그의 방문이 '매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구 소련 시절의 작전을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계획에 따라 잭슨과 2급 요원들은 또 한 번 몰려오는 거대한 음모를 해결하러 나선다.

3권. 호랑이의 실체(REAL TIGERS) 발행일: 2016년 10월 20일(재판) / 분량: 384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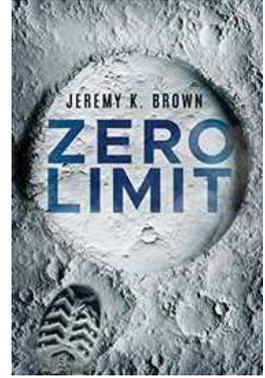
잭슨 램의 왕국 슬라우 하우스의 '그저 그런' 실력의 요원들 중 한 명인 캐서린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동료들은 그리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캐서린은 그냥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옛 연인이던 션 도노반이 포함된 일당에게 납치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션은 잭슨 램에게 연락해 캐서린을 되찾고 싶으면 정보부 본사 건물, 보안이 가장 철통 같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기밀 문서 사본을 빼내오라고 요구한다.

캐서린이 늘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든든하다고 이야기하던 요원, 리버 카트라이트가 그 불가능한 임무를 맡기로 하고 런던 리젠트 파크로 향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신임 내무부 장관과 정보부 수장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 그 사이에서 자신의 성공가도를 지키기 위해 배신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일류 요원들의 줄서기 전쟁이 가열되면서 정보부 내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그 사이 뜻하지 않은 죽음과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어지고, 잭슨 램과 '느려터진 말들'은 이 지지분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저자 소개>

믹 해론(Mick Herron)은 옥스포드에 살면서 잭슨 램 시리즈를 쓰고 있다. 시리즈 1권 '느려터진 말들'은 '가장 재미 있는 영국 스파이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이어진 작품들도 CWA 골드 대거 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제목 : ZERO LIMIT
가제 : 제로 리밋
저자 : Jeremy K. Brown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
장르 : 소설/ SF



***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에 돌아오기 위해 애쓰는 한 엄마의 처절한 사투와 뜻밖의 재앙, 영화 '그래비티'와 '마션'이 결합된 듯한 SF 소설**

알람 소리가 달콤한 꿈을 깨뜨리고 울리자마자 실내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바람에, 케이틀린은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돌아온다. 개인 비서 로봇 예바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향한 곳은 운동기구.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근육이 위축되거나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늘 철저히 운동을 해야 한다. 지금 케이틀린이 사는 곳은 달이기 때문이다.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누구나 이주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광고가 성행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려진 모습처럼 달에서의 삶이 왠지 로맨틱하리라 기대했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달 정착은 수익성 좋은 지하자원이 발견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케이틀린의 부모님은 헬륨 광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과거에 금광을 쫓아가던 사람들처럼 한몫 크게 벌려는 사람들이 달로 몰려들 때 달로 이주했다. 부푼 꿈을 안고 달에 이주한 1세대 지구인들은 얼마 못 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과 직면했다. 그 사이 달에서 태어난 케이틀린은 지구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팔아 달로 온 부모님이 큰 실패를 겪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다시 지구로 돌아갈 때 처음으로 지구 땅을 밟았다. 하지만 이미 지구 사람들은 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색안경 낀 눈으로 보았다. 달을 개척하고 도시를 건설한 것도 지구인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 지구인의 아이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틀린처럼 고향이 달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하얀 피부, 빛나는 금발, 신기한 푸른 빛을 띠는 두 눈, 어디에 있어도 두드러지는 케이틀린의 외모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과로부터 외면당하고, 겨우 사귀 친구도 '외계인과 놀지 말라'는 부모님들 때문에 잃어야 했던 아픈 기억을 케이틀린은 운동으로 이겨냈다. 가녀린 몸을 탄탄한 근육으로 채우고 군인이 된 케이틀린은 그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구를 지켰다. 그런 활약 덕분에 달 출신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구에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군인으로서 거둔 업적도 딸아이와의 생이별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벌써 몇 년째, 여덟 살 된 사랑하는 딸 에밀리만 지구에 두고 홀로 달에서 살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지구에 정착해서 사는 일이 썩 쉽지는 않아도 원하면 얼마든지 양쪽을 오갈 수는 있었다. 그러나 지구인과 달에서 태어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차별에 반대하던

과격한 시민단체가 헬륨 폭탄을 지구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지구는 달에서 지구로 오는 여행을 전면 금지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지구에서 태어난 에밀리는 그대로 머물 수 있었지만 부모님의 옛 동료들 덕분에 좀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달에서 광산 일을 하던 케이틀린은 그대로 발이 묶어버렸다. 40만 킬로미터가 넘는 우주 공간을 사이에 두고 딸과 헤어지고 만 것이다.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옛날 광고처럼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달에서의 삶이나 고된 광산 일도 에밀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었겠지만, 기약 없는 재회의 날만 기다리며 홀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었다. 영상 통화로 조금씩 커가는 에밀리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다시 에밀리를 꼭 끌어 안고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함께 살았던 때처럼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구로 소포 하나 보내기도 힘든 상황에 언제 다시 지구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기약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인 출신에 참전 경력까지 있는 케이틀린이 체력도 정신력도 월등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누군가가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한다. 지구와 달 쪽으로 다가오는 소행성을 포획하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해낼 경우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조 달러 가치가 있다는 그 소행성을 무사히 고정시키기만 하면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딸과 곧바로 만날 수 있다.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한 케이틀린은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자신과 함께 이 위험한 임무를 해낼 집단을 모으기 시작한다. 달에서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외롭고 고된 삶을 이어가는 광산 동료들을 모집한 케이틀린은 침착하게 운명의 날을 준비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일한 기회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돌진하는 소행성이 지구와 바로 충돌하여 딸 에밀리는 물론 지구 전체가 폭파할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케이틀린은 우주의 질서가 몽땅 바뀔 수 있는 이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선다. 과연 케이틀린은 돌진하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자신과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 달에 이주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흥미로운 소재가 시작부터 읽는 재미를 더하고 담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최악의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흡입력을 더한다.

<저자 소개>

제레미 K. 브라운(Jeremy K. Brown)은 2011년에 발표한 데뷔 소설 『Calling Off Christmas』를 시작으로 청소년 독자들을 위해 스티비 원더 등 유명 인물의 자서전을 썼다. 2016년에는 크리스토퍼 마리(Christopher Mari)와 함께 SF 소설 『Ocean of Storms』를 썼다. 「뉴스위크」, 「디스커버리」 채널 등 각종 매거진과 신문, 텔레비전 방송에 글을 기고해 왔다.

NON- FICTION

제목 : THE QUEEN'S EMBROIDERER

가제 : 여왕 옷에 자수를 놓던 사람

(부제 : 베르사유 시대, 주식시장이 처음 붕괴될 때 만난 연인들과 악당들)

저자 : Joan deJean

출판사: Bloomsbury USA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역사(프랑스)



- *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파리의 두 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프랑스의 경제, 문화, 사회사
-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에드문드 드 발의 「The Hare with Amber Eyes」의 뒤를 이을 흥미진진한 역사

문서나 사진으로 남은 기록보다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나라, 혹은 특정 시대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추적해나가다 보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입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프랑스 역사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프랑스의 패션과 음식 문화, 카페, 스타일을 비롯해 집 안을 꾸미는 방식, 파리의 형성 과정 등을 깊이 있게 통찰해온 저자는 우연히 알게 된 두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토대로 17- 18세기 프랑스의 경제, 사회, 문화사를 들여다본다. 루이 14세의 여왕인 마리 테레즈의 옷에 자수를 놓는 사람으로 왕실 기록에 이름을 올린 장 마골렛,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그의 딸이 불법 매춘 혐의로 미국에 추방되었다는 너무나 상반되는 기록을 발견하면서 저자의 흥미진진한 탐구가 시작됐다. 한 집안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고발로 딸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이 어딘가 미심쩍다는 생각에 좀 더 깊이 파헤친 결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방불케 하는 두 집안 젊은이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골렛 집안과 세브로트 가, 파리에서 번성했던 두 집안이 서로 원수가 되고 딸과 아들을 갈라놓자고 맹세하게 된 배경에는 파리를 덮친 주식시장의 위기와 쉽게 큰 돈을 거머쥐려던 자들의 끝없는 탐욕이 있었다. 땡땡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집안 전체가 와해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소개된다.

마골렛 가와 세브로트 가는 1600년대부터 왕실과 주요 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던 두 집안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로웠던 두 집안은 1719년 유럽 전체를 휩

쓴 경제위기가 임박한 시점에 달콤한 유혹과 마주한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전례 없이 큰 돈을 아주 쉽게 거머쥘 수 있고, 단번에 자산을 그 정도로 늘리려면 어느 정도는 빚을 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이 경제 이론에 폭 빠진 이들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데, 얼마 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무시무시한 폭염으로 농작물까지 병해충에 모두 쓰러지면서 프랑스 전체가 혼돈에 빠진다. 저자는 당시 왕실의 자수 담당자였던 장 마골렛과 재무 자문가로 일하던 앙투안 세브로트의 삶을 조명하며 이 엄청난 위기가 두 집안에 이후 수십 년 동안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정서적, 물리적 폭력과 의절, 아이들을 다른 집에 보내야만 했던 사태부터 남의 신분을 훔치고, 명예훼손으로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중혼에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루이스 마골렛과 루이 세브레트의 사랑은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딸을 국외로 추방시키는 집안의 냉혹한 선택으로 이어진다.

더 가지려는 욕심, 사기꾼, 호화로운 생활과 물건을 향한 욕망,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계략 등이 얽히고 설킨 이 시대 파리의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진 역사서이다. 모두 저자가 직접 찾은 역사적 문서와 충분히 입증된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

<목차>

마골렛 가의 가계도 / 18세기 초 파리 지도 / 연대표 / 모든 일의 시작

1장. 여왕 옷에 자수를 놓는 사람

2장. 불행한 연인

3장. 경제적 상승기 1: 소금과 세금 - 세브로트 가: 1604- 1698

4장. 경제적 상승기 2: 왕실 상인 - 마골렛 가: 1638- 1678

5장. 풋내기 시절 - 마골렛 가: 1679- 1698

6장. 연 소득, 연 지출 - 마골렛 가: 1677- 1691

7장. 비밀과 거짓말 - 마골렛 가: 1692- 1704

8장. 중요 인물 - 세브로트 가: 1692- 1708

9장. 대단한 겨울 - 세브로트 가: 1708- 1716

10장. 흑독한 시절 - 마골렛 가: 1705- 1718

(이하 생략, 총 23장, 맺음말,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조안 드진(Joan DeJean)은 펜실베이아 대학교에서 프랑스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The Age of Comfort』, 『The Essence of Style: How the French Invented High Fashion』를 비롯해 프랑스 문학과 역사, 문화에 관한 열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BURSTING BRAIN BUBBLES

가제: 거품 낀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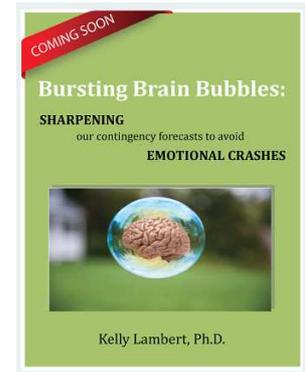
저자: Kelly Lambert

출판사: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분량: -

장르: 과학



*** 부동산 가격 거품처럼 뇌의 타고난 판단 능력을 흐리는 ‘뇌 거품’의 놀라운 영향력, 거품을 없애고 다시 정확하게 사고하는 방법**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있을 만큼, 우리는 이미 뼈아픈 실패와 고통으로 끝난 일들을 보고 듣고 읽으며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마치 새로 겪는 일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무엇이 그런 무모한 시도를 유발할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탐구와 도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을 신경학적으로 분석해온 저자는 흔히 ‘거품’이 꺾었다고 표현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그 의문의 핵심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적은 돈을 투자하면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이상 불려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주식이 나타났을 때 그 말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거품이 ‘팡’ 터뜨려진 뒤 일확천금의 꿈도 함께 터져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다. 저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투자는 조금만 하고 최대한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인 접근 방식, 즉 ‘거품’이 올바른 판단력을 흐린다고 지적한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뇌는 타고난 분석 능력과 적응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수익은커녕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불행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뇌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 이미 형성된 거품을 삭제하고 뇌 본연의 우수한 기능을 되찾는 법을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우리 뇌의 뛰어난 기능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기능이 가장 원활하게 발휘되려면 주변 환경과 인생 전반에 걸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깨끗한 공기 대신 매연을 들이마시면 폐 기능이 망가지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뇌로 유입되면 뇌의 정보처리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약물 중독, 빈곤, 정신질환,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거나 특권을 누리게 된 상황은 왜곡된 정보가 유입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뇌가 현실을 왜곡시켜 인식할 때 ‘거품’이 형성된다. 실제 가치를 뺀 채 수용하는 이 위험한 거품은 예기치 못한 시점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허위 정보를 현실로 믿어버린 장본인이 고스란히 떠 안는다. 저자는 ‘위험대비 계산기’라는 재미 있는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가 앞으로

할 행동이 가져올 결과, 특히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내다보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 능력을 키우고 거품이 터질 때 발생하는 정서적 충격과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준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따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소들, 단기적으로 반짝 얻을 수 있는 위험한 투자보다 장기적인 수익을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해야 할 것들, 일상생활에서 위험대비 계산기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 등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 대비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 단발적인 방법보다 운동처럼 뇌도 매일 꾸준히 관리하고 신경 써야 날카로운 예측 능력이 유지된다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늘 간과하는 원칙을 또 한번 상기하게 된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 에너지에 쫓겨 실수를 반복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자리에 잠시 멈추고 고착된 사고의 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 1장. 뇌의 위험대비 계산기: 성공의 비결
 - 2장. 뇌의 결과물: 행동의 여러 가지 형태
 - 3장. 인간의 뇌: 심하게 멋진 기능들
 - 4장. 뇌의 위험대비 회로 구축
 - 5장. 위험대비 계산기를 망가뜨리는 삶의 사건들
 - 6장. 계산기 미세조정: 쥐와 코미디언, 3관왕 기수들이 알려준 방법
 - 7장. 부모가 되었다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라
 - 8장.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계산
 - 9장. 사업을 시작했다면: 계산기가 필요하다
 - 10장. 위험대비 수준을 높이려면: 새로운 상황, 상상할 수 있는 현실
- 맺음말. 행복의 새로운 정의: 전략적인 샴페인 거품과 정확한 행동

<저자 소개>

켈리 램버트(Kelly Lambert)는 리치몬드 대학교 행동신경학 교수로 국제 행동신경학회 소속 회원이다. 저서로는 『THE LAB RAT CHRONICLES』, 『LIFTING DEPRESSION』 등이 있다.

제목 : HUNTING GIRLS

가제 : 사냥꾼 혹은 사냥감

(부제 : 헝거게임, 캠퍼스 강간 사건으로 살펴본 성폭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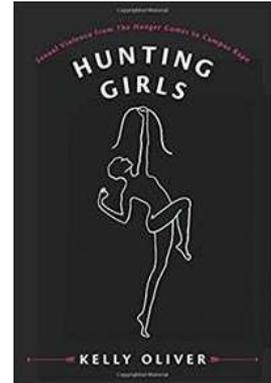
저자 : Kelly Oliver

출판사: Columbia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24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 초이스(**Choice**) 매거진 선정 **2016년 '주목할 만한 학술 분야 도서(OUTSTANDING ACADEMIC TITLE)'**
- * “시체처럼 꾸미고 트로피처럼 걸어놓는 대상, 거친 여성 등 현대 사회에 새로 등장한 비현실적인 시각과 폭력, 강간에 심취한 문화의 어두운 면을 탐구한 인상적인 책” - 「**The Monstrous-Feminine**」의 저자 바바라 크리드
- * “저자는 현대 영화와 소셜미디어를 상세히 분석하고 오늘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진 전형적 문화와 동화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From Reverence to Rape**」의 저자 몰리 해스켈

<헝거게임>의 캣니스, <트와일라잇>의 벨라, <다이버전트>의 트리스, 이 세 명의 여주인공은 불행한 상황에서 누가 구해주기만을 바라며 무기력하게 기다리기만 하던 전형적인 동화 속 여성의 모습을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거침없이 고난을 해결해가는 이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들 때문에 씩 통쾌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바로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택한 점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폭력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는 여주인공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무기력한 희생자의 이미지가 여성들의 과격한 폭력을 보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려는 의도가 적극 반영된 이미지로 바뀐 것은 아닐까? 폭력으로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 오래된 또 다른 판타지가 구현된 것은 아닐까?

저자는 대중문화에서 사냥꾼이 아니면 사냥감으로 양분되어 그려지는 젊은 여성들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책에서 면밀히 살펴본다. 폭력은 물론 성폭력도 불가피한 일로 그려지거나 바람직한 일, 심지어 여성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로 그려지는 부적절한 스토리라인과 더불어 힘과 권력,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린 여성들이 그 와중에도 남을 정성 들여 돌보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찌들면서도 사랑에 눈이 머는 것으로 묘사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나 수년 전부터 패션 잡지에 모델이 시체처럼 포즈를 취하거나 핏자국, 멍 자국이 선명한 몸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매력적인 이미지로 담아내는 문화가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을 가소롭게 여

기고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씨앗이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캠퍼스 폭력과 데이트 폭력,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장려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까지 하는 범죄 행위에서 그러한 정서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저자는 폭력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여기고 여성을 폭력의 희생자 혹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는 전사의 이미지로 왜곡되게 그리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낳고 있는지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한다.

<목차>

머리말. 트로피가 된 여성들

- 의식 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크립샷
- 파티 성폭력
- <헝거게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로 본 여성 폭력

1. 두들겨 맞고 성폭행 당하는 공주님

-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성폭행
- 약에 취한 공주님
- 잠자던 숲 속의 공주, 악몽을 깨우다
- 50가지 허락과 동의의 그림자

2. 구경거리가 된 성폭력, '크립샷(creepshot)'을 즐기는 문화

- 크립샷 문화
- "싫다는 건 좋다는 뜻", 합의하지 않은 섹스
- 상호합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 신고의 대가, 희생자라 주장하는 가해자들 등

3. 약탈자이자 먹이가 된 여성들

- (세부 항목 생략)

결론. 뉴 아르테미스,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책임

<저자 소개>

켈리 올리버(Kelly Oliver)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Women as Weapons of War, Animal Lessons』, 『Knock Me Up, Knock Me Down』, 『Earth and World』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THE LITTLE BOOK OF BIG IDEAS

가제 : 세상을 바꾼 150가지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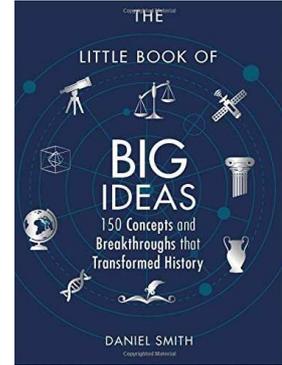
저자 : Daniel Smith

출판사: Michael O'Mara

발행일: 2017년 9월 2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역사



*** 종교, 과학, 철학, 의학, 심리학, 정치, 경제, 예술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150가지 아이디어를 총망라한 책**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먹어도 느끼는 감상은 제각기 다르다. 대체로 공통된 견해는 있을 수 있지만, 간혹 누구도 보지 못한 것,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것을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기, 전화 등 인류의 생활을 대폭 개선시킨 수많은 발명품의 탄생 배경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처럼 전에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놓기도 한다. 저자는 서구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과 사회 형성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준 150가지 아이디어를 분야별로 나눠 이 책에서 짚막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주와 종교에 관한 생각을 시작으로 수학, 과학, 의학, 철학, 정치, 예술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갑작스럽게,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된 역사적인 아이디어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기존에 알던 세상에 관한 이해 수준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오랜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이론, 개념, 생각들이야말로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고, 그 뿌리를 쫓아가면 모두 오직 인간만이 가진 독창성에서 비롯된 놀라운 업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개개인이 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주된 동력이 돈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그 두 가지 요소는 단기적으로 인간을 자극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상 전체를 새롭게 바꾼 것은 '아이디어'다. 그저 여기저기 쌓여 있던 돌무더기를 보고 맨 처음 '저걸로 멋진 성당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맨 처음 떠올린 사람이 있었고, 노비 혹은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통치 체제를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다. 병이 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 방식대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치료하려 하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하염없이 빌다가 인체의 각 부분의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 있었다. 우주개발, 중력의 발견, 통계학, 파시즘, 상징주의와 팝 아트, 모두 기존에 없던 개념이었지만 필요에 의해 누군가가 떠올린 생각에서 출발하여 중대한 이론, 원칙, 법칙,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인류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 어느 유명 작가의 말처럼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특성이 있고, 잡초처럼 밟힐 때 오히려 더 잘 자라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 소개된 150가지 아이디어 역시 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지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지식을 얻는 동시에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편리하게, 더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의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부: 우주와 종교

- 우주 / 신화의 탄생 / 다신론 / 유일신론 / 불교 / 부활 / 무신론 / 태양 중심설 등

2부: 수학

- 숫자 / 산수 / 대수학 / 기하학 / 비유클리드 기하학 / 무한대 / 무리수 등

3부: 과학

- 물리학 / 생명과학 / 분류학 / 과학적인 방법 / 인과관계 / 오류가능성 / 원소 등

4부: 의학과 심리학

- 의학의 개념 / 진단 / 인체 해부 / 병리학 / 수술 / 순환계 / 마취 / 세균론 등

5부: 철학

-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 소크라테스 방식 / 회의론 / 물질주의 / 이상주의 / 도덕 등

6부: 정치

- 법에 의한 지배 / 재산 / 주권 / 사회적 계약 / 제국주의 / 전쟁 / 평화주의 / 민주주의 등

7부: 경제

- 희소성 / 이용 / 돈 / 세금 / 수요와 공급 / 자본주의 / 보이지 않는 손 / 보호주의 등

8부: 예술, 건축, 음악

- 고전 예술과 르네상스 / 천체의 음악 / 시 / 연극 / 원형이 된 이야기 / 바로크 시대 등

<저자 소개>

대니얼 스미스(Daniel Smith)는 저서 『How to Think Like...』 등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글과 논픽션 도서를 쓰고 있다. 2013년에 출간 150주년을 맞이한 지정학적 정보 안내서 『The Statesman's Yearbook』에 참여해 왔다.

제목 : THE COMPLETE GUIDE TO ESSENTIAL OILS

가제 : 에센셜 오일 완벽 가이드

저자 : Gill Farrer- Halls

출판사: Quarto

발행일: 2017년

분량 : -

장르 : 취미/실용, 건강



*** 몸과 마음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지킬 수 있는 에센셜 오일 활용 가이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오일 유형별로 총 정리한 책**

집 안이나 사무실, 생활 공간에 향초를 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에센셜 오일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다. 연기가 나는 초 대신 가슴기처럼 물과 섞어 미세한 수증기 입자로 뿜어져 나오는 기기로 냄새도 없애고 오일의 효과를 누리려는 사람들도 많다. 도시 근교 허브 농원들도 허브 관련 상품으로 직접 만든 에센셜 오일을 판매하거나 오일 마사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생겼다. 그러나 에센셜오일은 생각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비누,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음식에 넣는 재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건강 관리법, '아로마테라피'를 가르치고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서 오일이 추출된 식물의 종류나 부위별로 에센셜 오일을 분류하여 작은 병 속에 농축된 놀라운 효과를 소개하고 그 효과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멋진 사진 자료와 함께 간략하고 쉽게 정리된 필수 정보와 바르고, 흡입하고,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레시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끊임 없이 찾는다.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로마테라피 마사지와 에센셜 오일 관련 상품이 큰 인기를 끈 것도 그러한 흐름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각종 화학성분으로 가득한 비누, 화장품, 공기정화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환경, 천연 성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에센셜 오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향이 좋은 식물의 여러 부위에서 그 방향 성분을 오일 형태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원래 식물의 수분을 돕거나 동물, 곤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분비되는 물질이다. 그러한 물질이 꽃에 담긴 경우도 있고 열매, 씨앗, 잎, 뿌리에 담긴 경우도 있으며 종류별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도 다르다. 중요한 것은 식물이 태양에서 얻은 빛과 공기, 물, 토양의 영양분을 결합하여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성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에센셜 오일은 유효 성분이 고농도로 농축된 형태로 굉장히 강력하므로 소량만 사용해야 하고 특히 피부에 바르거나 섭취할 경우 물이나 알코올, 다른 오일을 함께 사용하여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 저자는 에센셜 오일에 담긴 핵심 성분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일 별로 가장 적합한 활용법을 안내한다. 각 오일의 주된 효능에 따라 피부에 바르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고, 목욕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

려 몸을 담그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오일마다 추출 방식과 전통적인 활용 방식, 원산지, 오일이 추출된 식물의 특성, 사용을 피해야 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같은 주의사항이 제공된다.

<목차>

머리말

꽃

- 라벤더 / 로만 캐모마일 / 저먼 캐모마일 / 제라늄 등

시트러스

- 베르가못 / 스위트 오렌지 / 감귤 / 레몬 / 자몽 / 라임

허브

- 스위트 마조람 / 로즈마리 / 클레리 세이지 등

나무

- 샌달우드 / 주니퍼베리 / 사이프러스 / 유칼립투스 블루검 등

향신료

- 생강 / 흑후추 / 카다멈 / 계피 잎 / 정향 눈 / 육두구

플과 잎

- 페티그린 / 팔마로자 / 파츨리 / 레몬그라스 / 도금양

수지 성분과 뿌리

- 프랑킨센스 / 몰약 / 베티베르 / 벤조인

<저자 소개>

질 파르레 홀스(Gill Farrer- Halls)는 불교 승려로 인도, 네팔에서 활동하면서 런던 'Meridian Trust Buddhist Film'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아로마테라피, 명상, 영적인 깨우침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제목 : ARTIFICIAL INTELLIGENCE

가제 : 인공지능

(부제 : 생각하는 기계를 향한 도전)

저자 : Richard Urwin

출판사: Sirius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공학/기술



* 인공지능 기술의 탄생 배경, 현재의 기술 수준, 뜻밖의 활용 범위를 소개한 종합 안내서

지난 해 벌어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바둑에서 이기는 전략을 모두 습득하고 심지어 상대방과의 대결을 통한 학습으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대결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너무 불리한 구도였다. 그럼에도 세계 최상위권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이 다섯 번의 대국에서 단 한 번 승리하고 연이어 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알파고의 승리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준 것이 분명하다.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지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 생활과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 무엇일까?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일까? 40년 가까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해온 저자는 첫 번째 저서인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인지만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을 일반인들의 시각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과 흐름을 함께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현황, 앞으로의 방향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는 사실은 역사 시간에 똬 석기를 배울 때부터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인간은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많은 도구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 피라미드를 비롯한 거대하고 섬세한 건축물은 기술 수준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수천 년 전에 지금의 기술로도 쉽지 않을 성과를 거둘 만큼 인간의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현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기술도 모두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은 이렇듯 물리적인 힘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됐다. 그 시초는 복잡한 계산을 대신 해주는 계산기로, 사람의 ‘뇌’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곧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계산기는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어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사람처럼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대신 정해진 규칙과 절차만 고려하여 주식시장에서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했다.

저자는 사람의 생각을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된 이 인공지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가 점차 정교하고 세밀해지면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더 세밀해진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퍼지 논리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간의 뇌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선 전략 등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는 만큼, 낯선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가능해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 1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2장. 생각을 돕는 도구 - 인공지능 개발의 첫 걸음?
 - 3장. 컴퓨터
 - 4장. 인공지능의 역사
 - 5장. 내 행동은 따라 하지 말고 말만 들어
 - 6장. 틀, 지식, 학습
 - 7장. 퍼지 논리
 - 8장. 포섭 구조
 - 9장. 신경 네트워크
 - 10장. 진화 연산
- (이하 생략,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리처드 어윈(Richard Urwin)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1975년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해 왔다.